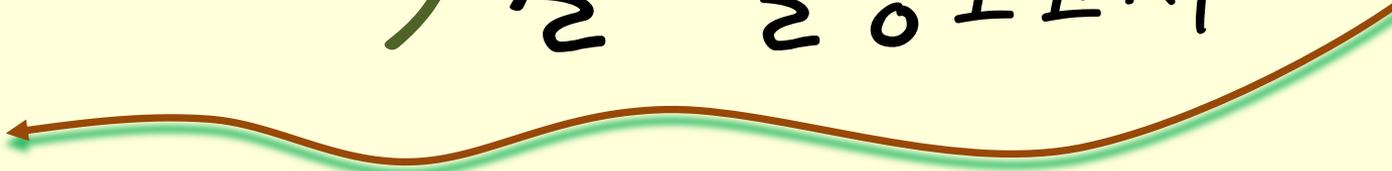


9월 활동보고서



RaonAtt 10th 태국 팀의
첫 번째 이야기

Contents



1. YMCA & Routine
2. Love Coffee
3. Welcoming Party
4. End Poverty
5. Feeling

1. YMCA & Routine



출발 그리고 도착



9월 6일 우리는 많은 가능성을 마음에 품고 태국으로 출발 했다.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수진이와 함께 우리는 모두 아주 당당하게 출발~

드디어 길면 긴 짧으면 짧은 비행이 끝나고 태국 도착!!!!

First St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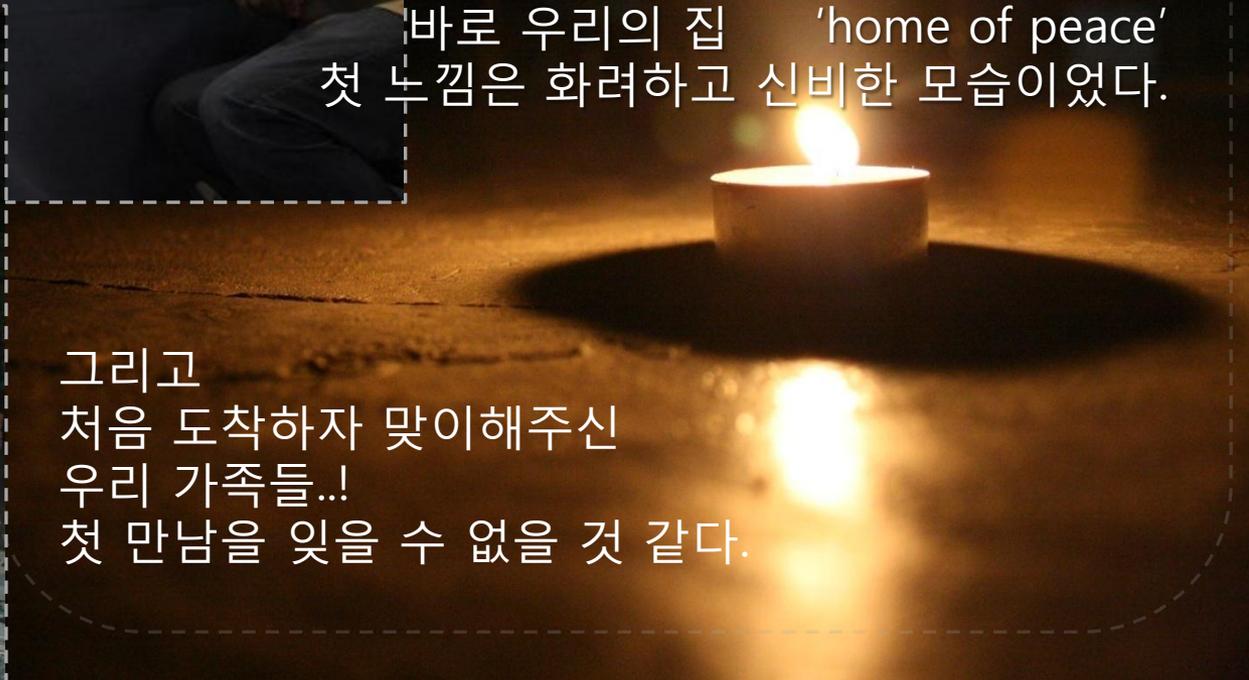


Sankhampeang YMCA

우리가 치앙마이에 와서 처음으로 간 곳이다.
바로 우리의 집 'home of peace'
첫 느낌은 화려하고 신비한 모습이였다.



그리고
처음 도착하자 맞이해주신
우리 가족들..!
첫 만남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1st meeting & Naming



Ton Khun

닉 쿤과 똑같은 이름?!
축복의 의미~



Ton Yong

태국 유명배우
이름과 똑같다.
예쁘고 은은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



1st meeting



Ton Phai

대나무
유용한 사람이란 뜻.



Dok Khem

우리 팀에서 유일한 꽃.
팔색조,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

Sao Hin YMCA



Sao Hin YMCA

환경과 에너지를
중점을 두고 있는
Saohin Y를 방문했다.



DIY 교육

Do It Yourself, 즉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것.
Saohin Y에서 페트병과 플라스틱으로
CAFÉ에 꾸밀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다.



Energy 교육

P차가 대체에너지와 기후 환경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우리 이를 통해
350PPM까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Chiangmai YMCA



치앙마이 Y

치앙마이 Y Hotel과 수입의 목적으로 손으로 직접 만든 물품들을 팔고 홍보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곳에서 단순히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Y에 필요한 사업 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 후원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Looking & Walking

Walking Street

매주 토요일 4시~10시에 SKP 메인 도로가 통제된 후 열리는 엄청난 야시장! 먹거리, 옷, 생필품 또한 팔고 있어서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 것 같다.



보쌍 (Bosang)

SKP Y 근처에 종이 공예 우산을 제작하는 곳으로 유명한 보쌍에 다녀왔다.





Hot spring

태국식 온천, 우리나라 온천을 생각하고 갔다가 실망을 했다. 그러나 계란을 온천에 익혀 먹는 것에 놀라며 맛있게 먹었다.



CAFÉ

나땅, 타멜, P바스 커피집 등은 우리가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휴식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



Friends



뽕이
태국에서 한국어과
를 전공, 정말 친절
하고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우리의 친구



Poppy
YO가 소개 시켜준
영국 할머니 쿨, 포
스가 넘치시고 스릴
넘친 인생 때문인지
좋은 이야기도 많다.



탑틴, 폰
라운아띠 4기, 5기
단원들이다. 태국어
를 이렇게 잘 할 줄
이야....

P'팡
나땅 카페에서 만
나 좋은 이야기
꾼이 되어주는 친
구이다.



**JKY stude
nt**
Welcoming
파티 때 공연
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친
해짐! 다음 달
캠페인 때도
같이 할 수도
...

오이, 듀
파이가 소개시켜준
친구들이다. 파이를
담아서 인지 정말 밝
고 착하다.
배드민턴 숨은 고수!



2. Love Coffee



Love Coffee

원래는 이름을 '라온아띠'로 생각했던 이 카페. 하지만 대전YMCA에 이미 라온아띠 카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꿀 수 밖에 없었던 기구한(?) 운명의 카페이다. 'Love' 라는 단순한 이름은 사실 이 카페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일 수 밖에 없다.

이 카페의 취지는 태국의 'Organic Farm'에서 수확한 원두를 구매, 그 원두로 만든 커피를 판 수익의 10%가 또 그 농장으로 돌아감으로써 지역과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가 실현되려면 바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Love' 라는 이름은 단순하지만 가장 잘 어울릴 수 밖에!

10기 태국팀은 우리의 주력 활동이 될 Love Coffee의 번창을 바라며 . 우리가 처음부터 함께 한 Love Coffee 이니만큼 이 곳을 찾는 손님들에 관심을 더욱 갖게 되었고, 그 덕에 손님들의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메뉴도 생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달 Organic Farm에 방문해 배워오면 그 이상의 한 발자국을 내딛을 수 있지 않을까!

Painting

우리에게 처음 주어진 **Mission!**

Love Coffee에 색을 입혀라! 처음엔 허름했던 한 건물.
공사 중이던 곳에 갑자기 투입된 우리는 함께 일하는
아저씨들과 4일 동안 카페를 완성시켜 갔다.
먹고, 칠하고 먹고, 칠하고 자고 ...를 4일을 반복!!



Love Coffee

끝이 안보이던..
페인트칠이..
오픈식 하루 전,
우여곡절 끝에
예쁜 모습을
드러내다!



OPEN & RUN



Love Coffee 오픈을 알리는 커다란 나무 보드도 만들었다!



Step0. 드디어 **오픈식**.

이 날은 고베YMCA와 산캄펑YMCA의 협력 3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했다. 한국, 태국, 일본 등 각 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30주년과 **Love coffee**에 대한 축하를 보내며 Organic Café의 문이 활짝 열렸다.



Step1. LOVE COFFEE 배워보기

라온아띠 10기 태국팀의 주력 사업이 될 LOVE COFFEE!

원래는 라온아띠 카페로 하고 싶었을 만큼 이 카페는 산캄펑YMCA와 라온아띠 단원들에 의해서 운영된다. 우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YMCA스텝이자 바리스타 P'Ton과 P'Nang에게 커피를 배우기 시작했다.

열심히 배우고 P'Prae와 바리스타 P'Ton에게 Taste Test 작업을 거치고 **준비 완료!**





Step3. 본격 시작.

산캠프 YMCA는 주말의 Language 스쿨을 운영하고 평일엔 YMCA 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데에 시간을 쏟는다. 사람이 와글 와글 거리는 시기는 당연히 주말 LANGUAGE 스쿨!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여타 방문객들로 바글바글 거렸다.

첫 날의 우리는 말 그대로 '멘붕!'

아직 익숙지 않은 커피를 만들라, 외국인들에게 외국어로 주문도 받으라, 외국어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얘기까지 하라, 정신이 외출하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외국인인 우리에게 대한 어색함이나 두려움은 점차 줄어가고 점점 날이 갈 수록 매출도 늘고 그냥 찾아와 인사를 하고 가는 아이들과 부모님도 많아졌다! ☺

Only Café?

No! 아띠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이 곳의 이야기를 알고 싶고 궁금하다.

그러던 중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Volunteer talk!** 영국 윈더우먼 Poppy가 여기저기를 여행하면서 겪은 일들, 태국에서의 삶을 공유했다. 현지 주민과 더불어 아띠들도 각국에서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Love Coffee는 우리의 소중한 공간이 되리라!

Volunteer talk

with
RaonAtti 10th
&
Poppy

2013.9.22 (Sun)

Topic : Experience in Thailand

at the YMCA
LOVE COFFEE!



Make some news



NEW MENU

ใหม่

เมนู

RoomAtti

손님은 왕.

유난히 베이커리 메뉴를 많이 찾던 손님들.
쿠키를? 케익을 사서 팔까? 고민하다,
와플기를 사서 사이드 메뉴로 와플을
만들어 팔기로!!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지금도 꾸준히 꼬마 손님들의 관심을~

더불어

쿠폰도 기획 중이다.
350ppm의 일환으로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고자 텀블러로 마시는 손님
에게는 5번에 한 번, 그냥 음료를
주문하는 손님에게는 10번에 한 번
음료를 주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



Tel. 053-
331696,
332234

SANKHAMPAENG YMCA LOVE COFFEE v



3. Welcoming Party



Welcoming Party



환영 파티

Sankhampaeng, Saohin, Chiangmai Y & Kobe Y 분들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JKY school 학생들의 태국 전통 춤 등 여러 축하공연까지 정말 감사한 시간! '장구'를 치던 중 장구채가 날아가버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다들 함께 즐길 수 있던 하루였다.





좋은 친구들

17살부터 70대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만나 소통하고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Party 이후 Love Coffee에서 다 함께 불렀던 태국 노래 'Yoo Tor Loey Dai Mai'는 외워서 같이 부르기로 한 약속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연습중~



350PPM Campaign

Step 1. Meatless Monday



Meatless 어렵지 않아요!

야채, 해산물 등을 이용한 먹거리가 이렇게나 많다!

한가지 고백하자면, Meatless를 실천하기로 한 첫 날, 깜박하고 고기를 먹었다는 슬픈 얘기가....

Step 2. 손 빨래 하기



Po빨래wer

수진 대원의 역동적인 모습이 보이시는가!

쉬운 단계인 양말부터 고난이도 단계인 바지 빨기까지 열심히 손 빨래를 하고 있다~!

태국 팀 Shww shww!(힘내!)

Step 3. 콘센트 뽑기

필요하지 않은 콘센트를 뽑고 있는 별기 대원! 이외로도 필요 없는 형광등은 끄고 다니는 등 전기 아끼기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End Poverty



RaonAtti



KB국민은행

Love Coffee Talk Concert End Poverty

When : 12.10.2013 (Sat) 6:00pm

Where : Love Coffee

Topic : End Poverty

Main Contents

Lecture : relation among Eco tourism, Love coffee and Poverty

Dinner Time

Talking to share experiences

Promise to act

*Performance of RaonAtti from Korea



End Poverty

캠페인 준비 활동 (09.16-10.11)

도착한 직 후 대부분의 시간을 'Love Coffee'를 위해 일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인 "Everybody Happy"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로 생각했다.

우리가 커피 한잔 한잔을 판매할 수록, 유기 농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와 그들의 공동체에 더 많은 것을 얻어 줄 수 있고, 그 것이 모두를 웃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RaonAtti YUCA KB국민은행

Love Coffee Talk Concert Everybody Happy!

When : 12.10.2013 (Sat)

6:00pm

Where : Love Coffee

Topic : End Poverty



캠페인을 계획하며

우리는 예기치 못한
많은 행운을 얻었다.

Khun과 동갑내기인
Ma-jo Univ.. 의 Oat



교수님... 그를 통해 라오스, 대만,
중국, 홍콩, 필리핀 등의 친구들과
도 각 나라의 Poverty에 대해 이
이야기 할 수 있는 행운을~



P. Yo를 통해 만난 우리의 영원한

영국인 원더우먼, Poppy여사님과 치앙마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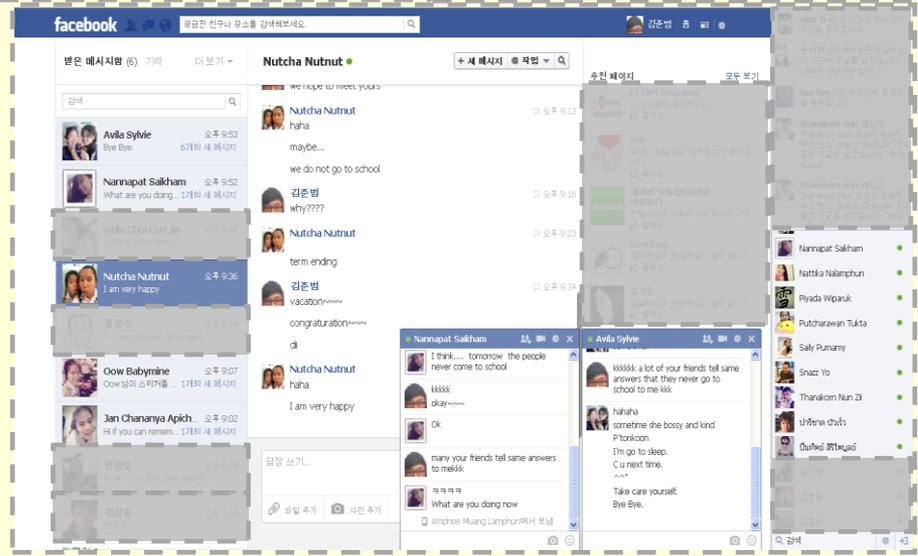
수많은 YMCA staff들을 통해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수 많은 동네 & 글로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행운까지~

준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들의 RaonAtti가 되길!



5. Feelings



Ton Pai & Dok Khem

Ton Phai

태국 치앙마이에 온지 벌써 3주가 지났다. 하루 하루 정말 빨리 갔고 보고서를 쓰면서 몰랐던 부분까지 생각해 보니 한달 동안 참 많은 일을 했고 좋은 사람들 때문에 태국에서의 적응을 잘 했다. 이번 달 나의 문제점은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중적인 나 자신이다. 아직 내가 어떤 본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나 자신 또한 찾지 못한 것 같다. 어렵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고....다음 달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노력하고 배웠으면 좋겠다. 더욱 열심히 살아 보고 더욱 그곳에 재미를 느끼도록 노력하겠다.

똥 파이 파이팅!!

Dok Khem

낯선 언어와 낯선 사람들과 지내는 생활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다. 그 생각은 실제가 되니 많이 달랐다. 언어의 장벽의 걱정은 서로에 대한 웃음과 관심으로 잠잠해졌고, 매일 많은 낯선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걱정도 서로에 대한 배려로 사라져 갔다.

때론 수 년간의 서로의 스타일의 차이를 느끼기도 한다. 더 지혜롭게 겪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또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특히 현지 스텝들에게 생각 이상의 영향을 미친단 것에 대해 알게 된 후, 나는 가족이지만 그들의 보살핌의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 자각하게 되었다. 자원활동에 있어서도 어떠한 과정과 태도가 필요한 지 하루하루 배우고 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나날이 느끼고 있으니 다행이다! 웃자!!

Ton Yong & Ton Khun

Ton yong

태국에서의 시간이 벌써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백지상태로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한 게 어 그제 같은데 서툴지만 태국어로 안부를 묻고, '잘 가'라는 인사할 수 있는 지금의 제 모습이 아직 꿈만 같습니다. 음식, 화장실 등 태국에 너무 잘 적응하고 있지만 팀에서 '모기 밥'을 담당하고 있는 건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네요.^_^

무엇보다도 새로 만나는 사람들과 다양한 주제를 태국어, 영어, 바디 랭귀지를 섞어 말하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은 5개월 내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나도, 우리 팀도 Ssu Ssu!!

Ton Khun

3주간의 여정이 나에겐 지금까지의 24년의 시간을 모두 돌이켜 보는 시간이었다. 기후도 물도 컨디션도 적응하기에 시간이 걸렸지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보대끼고 불편한 옷을 걸친 것마냥 답답한 하루하루다 보니 지금까지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던 것 같다. 그래서 생각이 정리된 날엔 일기를 쓰며 나에게 질문을 던지곤 한다. 언제 내가 정말 즐거웠는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할지, 내가 누군지... 해보련다, 그 고민들을. 그리고 다음달도 실컷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보겠다.